

올해도 곡물가·운임 지속전망, 선물거래로 리스크 관리 필요

‘해외농산물 & 운임 가격전망 및 헤지 방안 세미나’ 개최



홍보부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국내 축산사료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사료협회·시카고상품거래소·유진투자증권 공동주최로 개최된 ‘해외농산물 & 운임 가격전망 및 헤지방안’ 세미나에서, 올해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해상운임의 지속세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탄올용 사용량 증가로 옥수수·대두 가격 지속 상승

수잔 서덜랜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이사는

2007년과 2008년 곡물(옥수수, 대두, 소맥)의 가격이 지난 '95년 이래 사상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총 공급량은 풍작이나 수요가 워낙 많고, 에탄올 산업의 활황으로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미산 옥수수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3억5천만톤)했으나 옥수수의 에탄올용 사용량이 2005년 대비 2007년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용량(내수소비, 수출)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3억2천5백만톤)함으로써 기말재고율은 10.6%로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옥수수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두와 소맥 등 재배면적이 옥수수로 전환

됨에 따라 연쇄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두 역시 대두 경작농들이 대규모 옥수수(에탄올용) 경작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대두 사용량 증가로 2007 대두 기말재고율이 5%대로 추락(2006년 18%)함에 따라 가격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맥의 경우도 기본적인 수급불안(생산량 감소, 소비량 증가)에 국제 헤지펀드들의 소맥선물 매입경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말재고율 18%로 이런 재고율은 71년 식량파동 이후 30년만이 일이다.



해외 헤지펀드 선물시장 진출 가속화... 농산물·원자재價 상승 요인

유태석 CME 그룹이사는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외환(달러) 투자에서 실물 자산(농산물·원자재) 선물시장 진출을 가속화로 인해 농산물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유 이사는 2006년 전 세계 기관투자 보유 자산총액 50조 달러, 세계 헤지펀드 운용자금 1조1천억 달러 중 2007년 실물자산 시장투자 총액이 1천2백억달러에 불과, 향후 실물자산 시장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으로 결국 농산물·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동남아 등 수요량 증가... 해상운임, 지속 상승 전망

한편 해상운임 또한 고곡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경우 해상운임이 포함된 국내항 도착기준가격(C&F)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상운임료 상승이 사료 값 상승에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 해상운임 상승은 중국의 성장으로 세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선박공급이 부족하고, 호주와 인도 등 세계 주요 항구의 체선현상이 해상운임의 강세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진해운 지명화 부장은 올해 해상운임과 관련해 선박 건조물량이 증가하여 운임가격이 2007년과 같은 급등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상운임 역시 예전 가격대로 회귀하지는 않아 해상운임은 100달러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곡물 안정 구매 위해 선물거래·가격헤지 이용해야

배정석 유진투자선물 팀장은 국내에서도 해외 곡물 구매에 있어서도 가격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물·옵션 투자와 가격헤지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운임시장 또한 선물시장이 일종인 운임 선조거래가 가능하므로 가격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92년 FFA시장 개설 이후 최근 5년간 세계 운임시장은 FFA를 중심으로 가격결정권을 선도하고 있음 지적하고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